



봉수대



한 아
동화작가

‘영’은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인연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았고, 중학생이 된 후로는 단 짝이 되었다.

영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열었을 때, 나는 영의 음악학원의 첫 번째 수강생이 되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학원 수강생이 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 레슨비를 내며 영의 학원에 다녔다. 몇 해 전, 생일을 앞두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집 현관 앞에 미역국과 과일을 놓고 간 것은 영이었다. 영과 나는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위로하고 훈수를 두며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친구였다.

작년 추석 언저리에 영과 저녁을 먹었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건강이 주제로 떠올랐다. 주위의 몇몇 친구들이 암을 앓고 있었다. 누구는 수술했고, 누구는 완치 판정받았고, 누구는 전이되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영은 자기에게도 암이 찾아올까 봐 걱정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부터 앞설 필요가 있을까. 나는 닥치지도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암이면 수술 잘 받고 치료하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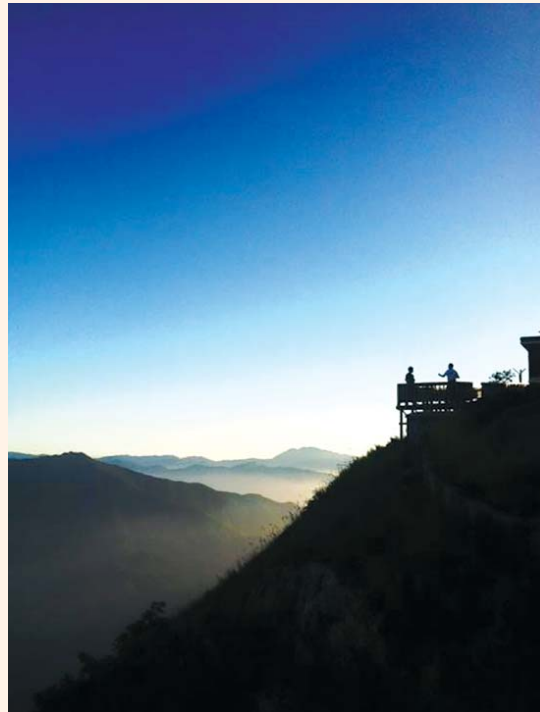
그런데 한 달 후, 영은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했다. 충격과 슬픔에 빠져 며칠을 보낸 후, 영은 기운을 내고 일어났다. 수술받을 병원을 물색하고 암과 그 치료과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도 영이 진단받은 암에 대해 찾아보았다.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구나, 특히 먹는 것을 가려야 한다니 영이 좋아하던 회도 당분간은 못 먹겠구나, 5년이나 10년은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구나. 그러다가 ‘관해(寛解 Remission)’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속에서 원인이 완벽히 제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완치’라는 표현 대신 ‘질병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관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너 그러울 관(寛)에 풀 해(解), 질병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증상이 풀렸다는 뜻이다. 관해는 현재 건강해 보이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상태이다.

문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관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다. 전쟁을 잠시 쉰다는 휴전 상태가,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이 교류했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남북관계는 냉랭

경계(警戒)의 토대 위에 경계(耕界)의 마음으로



벗과의 사귄나 일상의 영위, 모두에서 우리는 경계(耕界)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리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평화로운 상황이니 완치가 아닌 관해의 상태라 할 수 있겠다.

‘경계(警戒)’는 뜻밖의 사고나 적의 침입을 미리 막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조심한다는 뜻이다. 지난 73년 동안 우리는 경계(警戒)하며 평화를 지켜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안타깝고 소중한 희생도 있었다. ‘경계(耕界)’는 주어진 밭을 정성껏 일구고 가꾸는 구역이라는 뜻의 동음이의어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경계(警戒)의 날 선 마음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의 터전을 평화롭게 일구는 부지런한 경계(耕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영이 암 투병을 시작한 지 반년이 흘렀다. 수술을 끝낸 영은 힘든 항암치료도 잘 견뎠다. 항암치료를 하며 밀었던 머리는 얼마 전부터 까슬하게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방사선치료도 끝날 거라고 한다. 영이 암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일상을 적극적으로 가꾸며 살아내길 응원한다. 건강이든 평화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경계(警戒)의 토대 위에 경계(耕界)의 마음으로 관해의 상태를 맞았으면 좋겠다.

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어렵듯이 기억나는 ‘다대포 무장 간첩 침투 사건’ 같은 것 말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때때로 우리의 안전을 흔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지내지는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상은 평화롭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편이다. 여전히 휴전선이 존재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을 누

포토 에세이

새 생명이 깃든 우편함

주택의 낡은 우편함에 딱새가 둥지를 틀었다. 필자가 운영하는 가게와 같은 거리에 있는 집이다. 올봄 딱새 수컷이 이 골목에서 자주 ‘세레나데’를 부르곤 했었다. 결국 우리 동네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새끼는 다섯 마리, 이 소(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를 떠나는 일)를 앞둔 시점에 만났다. 우편함은 수시로 우편물을 받고 있었고, 이 둥지를 발견할 당시에도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 이날 우편물을 별도 종이함에 넣도록 배려했다. 둥지를 한쪽 구석에 마련해 다행히 다치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딱새 가족’ 덕분에 적적한 골목에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 다섯 마리 모두 잘 성장해 이소했다. 내년 봄에도 이 골목에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

이무현(사진가)

